
저자 (Authors)	임영애
출처 (Source)	신라문화 47 , 2016.2, 55-78(24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47 , 2016.2, 55-78(24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39761
APA Style	임영애 (2016).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새로 발견된 "명문"과 "양식" 문제. 신라문화, 47, 55-7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6: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새로 발견된 '명문'과 '양식' 문제

임 영 애*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통일기 신라 '축지인계열' 수인의 양상과 의미 |
| II.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현상과 새로 발견된 '명문' | V. 맺 음 말 - '명문'과 '양식'의 불일치 문제-계열 불상 |
| III.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특징과 동일 | |

[국문초록]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대좌 중대에서 '開元十'의 명문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용선대 석불좌상의 명문을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명문 그 자체도 의심스럽지만 양식적으로도 8세기 전반의 불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평퍼짐한 육계와 두터운 上臺, 높은 中臺는 9세기 불상의 특징이다. 또 '축지인 계열' 수인 역시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불좌상에서 애용된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창녕에는 8세기 중엽이전에 제작된 불교미술이 없다는 점도 용선대 석불좌상이 8세기 전반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희박하게 한다.

8세기 전반에 이곳 창녕에 불교가 특별히 융성했다는 직접적인 기록도 찾을 수 없다. 설령 8세기 전반에 창녕의 불교가 특별했다고 하더라도 창녕이라는 지역에 석굴암 본존상 보다 앞서 '삼단팔각연화대좌'가 최초로 조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경주지역에도 석굴암 본존 이전으로 올라가는 '삼단팔각연화대좌'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8세기 전반에는 중국 당대 불상에서조차 '삼단팔각연화대좌'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자는 창녕의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이 8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명문이 새롭게 알려지기는 했지만, 통일기 신라 조각사의 흐름으로 볼 때 8세기 전반으로 올려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명문이 알려지기 전, 양식 특징만으로 판단했던 제작 시기인 8세기 말~9세기 전반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영문초록] Inscription '開元十' was found on the middle layer of the pedestal of the Seated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부교수.

Stone Buddha Statue at Yongseondae of Gwallyong-sa in Changnyeong. However, it is hard to believe the inscription as it is. The contents of the inscription are questionable, and moreover, the style of the statue suggests that the statue is not from the early 8th century. In particular, the flat and round *uṣṇīṣa*, and the thick upper layer and high middle layer of the pedestal are the characteristics of 9th-century Buddha statues. What is more, the hand sign of 'Bhūmisparśa line' is found commonly in seated Buddha statues dated the late 8th century or early 9th century. Furthermore, the fact that no Buddhist art created in or before the mid 8th century has been found in Changnyeong denies the possibility that the seated stone Buddha statue of Yongseondae was created in the early 8th century.

We cannot find any direct record telling that Buddhism was particularly prosperous in Changnyeong during the early 8th century. Even if Buddhism was popular in Changnyeong in those days, it is hard to say that an octagonal three-step lotus pedestal was created for the first time in Changnyeong, even earlier than the main statue of Seokguram. It is because the Gyeongju area does not have an octagonal three-step lotus pedestal dated back earlier than the main statue of Seokguram, and even few of Chinese Buddha statues created in those days use an octagonal three-step lotus pedestal. In the author's opinion, although a new inscription was found, which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seated stone Buddha statue at Yongseondae of Gwallyong-sa in Changnyeong may be from the early 8th century, it is hard to date the statue back up to the early 8th century considering the trend of Buddhist sculpture in Unified Silla. Rather, a more reasonable date may be the late 8th century or the early 9th century, which is based on its stylistic characteristics apart from the inscription.

[주제어] 관룡사(Gwallyong-sa), 용선대(Yongseondae), 통일기 신라(Unified Silla), 창녕(Changnyeong), 삼단팔각연화대좌('octagonal three-step lotus' pedestal)

I. 머리말



도1.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임영애

관룡사 용선대의 석불좌상은 경남 창녕 관룡산 정상에 봉안되어 있다. 광배는 잃었지만, 불상과 대좌는 크게 손상된 곳 없이 잘 남아있다. 지금까지 이 석불좌상은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도1).¹⁾ 육계가 평퍼짐하고, 목이 짧아 바트며, 무릎의 두께가 두껍고, 또 대좌의 중대가 높다는 몇 가지 특징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이 석굴암 본존상보다 늦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보았고, 이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09년 용선대 석불좌상의 대좌 중대 안상 안에서 '開元十'의 명문이 새롭게 밝혀졌다. 현재 '開元十'에 이어 글자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 원래 글자가 더 있었을 것이

라고 판단하고, 개원10년(722년)부터 19년(731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때는 성덕왕 21~30년에 해당한다. 명문은 이미 밝혀진 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첫째 줄이 '開元十', 둘째 줄이 '月廿', 셋째 줄이 '成內'로 읽힌다.²⁾ 이 명문대로라면 용선대 석불좌상은 8세기 전반에 제작한 불상이 된다(도2,3).

신라 중대의 불상 가운데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예는 아주 드물다. 10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략의 제작 시기라도 파악할 수 있는 불상은 기껏해야 10건 남짓이다.³⁾ 그 가운데 독립 석조상은 719~720년의 감산사 불상과 보살상이 가장 이

1) 진흥섭, 『한국의 불상』, 일지사, 2009, pp. 249~250 ; 김리나, 「통일신라시대의 향마축지 인물좌상」,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일조각, 1991, p. 372.
 2) 명문은 최성은 교수가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소고-조상명문과 중대신라 불교조각」, 『신라사학보』 16, 2009, pp. 225~226에서 잘 밝혀두었다.
 3) 즉 673년 계유명 전씨 아미타삼존불비상, 679년경 사천왕사지 塑造神王像, 682년경 감은사사리기 사천왕상, 692년 이전 구황동삼층석탑 출토 순금불입상, 706년경 구황동삼층석탑 출토 순금아미타불좌상, 719년경 감산사미륵보살상, 720년경 감산사아미타불상, 751~771년경의 석굴암 본존불, 758년경 갈항사지 석불좌상, 766년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이 있다.

른 예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명문이 확실하다면 그 의미는 특별하다. 통일기 신라 전기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며, 경주도 아닌 창녕에서 석굴암 본존상보다 앞서 통일기 신라 최초의 삼단팔각연화대좌가 등장한다는 새로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글은 관룡사 용선대의 석불좌상이 8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명문이 알려짐에 따라 과연 명문에 쓰인 대로 이 상을 8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려는 것이다. 만약 이 석불좌상의 양식을 명문대로 8세기 전반으로 올려보기 어렵다면, 발견된 명문과의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이 역시 이 글에서 함께 고려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이 지니는 독특한 수인, 즉 소위 '촉지인계열'의 수인에 주목하려 한다. 7세기 후반 균위삼존석불을 시작으로 삼릉계 석불좌상(1), 삼릉계 석불좌상(2), 용장계 석불좌상 등 꽤 많은 예들이 모두 소위 '촉지인계열'의 수인을 짓고 있다. 통일기 신라의 이들 '촉지인계열'의 불상들의 양상은 어떠하며, 그 존명과 의미는 또 무엇인지 역시 함께 살펴보려 한다.

II.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현상과 새로 발견된 '명문'

창녕은 '제2의 서라벌'이라고도 불릴 만큼 신라 당시 꽤 영향력 있는 지역이었다.⁴⁾ 불교미술도 크게 번성하여 이곳 창녕에는 보물 제295호인 용선대 석불좌상을 비롯하여 보물 제519호 관룡사 약사전 석불좌상, 술정리 동삼층석탑과 서삼층석탑(보물 제520호), 오산리 삼층석탑, 인양사탑금당치성비상(810년, 보물 제277호), 송현동 석불좌상(보물 제75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 글에서 주목하는 작품은 바로 관룡사에 속해 있는 용선대의 석불좌상이다.

이곳 관룡사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문헌 기록은 많지 않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733년에 쓰인 『관룡사사적기』, 그리고 개인문집에 쓰인 간략한 유람기 정도이다.⁵⁾ 이 가운데 용선대 석불좌상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다만 관룡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관룡사사적기』의 언급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화왕)산 동쪽의 새처럼 생긴 곳에 절이 있는데, 관룡사라고 부른다. 속전에는 산 정상에 3개의 연

4) 장일규, 「창녕 관룡사의 신라 불교사적 위상」, 『신라사학보』 26, 2012, pp. 51~77 ; 주보돈, 김용성, 이한상, 조효식, 『한국 고대사 속의 창녕』, 창녕군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9, pp. 74~81 ; 최성은, 앞 글, 2009, pp. 225~260.

5) 이종휘, 『修山集』(1799년), 조공섭, 『巖棲集』(연대미상) 정도인데, 관룡사를 유람한 후 간략히 언급한 정도로 용선대와 관련한 기록은 없다.

명문은 불상을 바라보았을 때 향우, 즉 대좌 중대의 정면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3번째 안상에 있다. 명문은 표면의 풍화가 심해 육안으로는 알아보기가 어렵다. 현재 정확히 확인되는 글자는 모두 7자이다(도2,3). 오른쪽부터 첫 번째 줄에는 세로로 '開元十', 둘째 줄은 '月廿', 셋째 줄은 '成內'로 읽힌다.¹³⁾ 명문의 구성은 중대 신라의 전형적인 이두문 형식이며, 남겨진 글자와 마모되었을 글자로 판단해 보면 '開元十△月廿△에 이루다'로 해석된다고 한다.¹⁴⁾ 명문대로라면 이 불상의 제작 시기는 개원10년인 722년에서 개원19년인 731년 사이에 조성한 것이 된다. 만약 이 명문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용선대 석불좌상은 8세기 전반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명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명문과 관룡사 용선대 불좌상의 양식의 불일치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기술하겠지만, 명문 자체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글씨 字體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¹⁵⁾ 그러나 첫째, 글자의 획이 너무 얇고, 글씨 폭이 2cm밖에 되지 않아 너무 작다는 점이 문제이다. 명문 글자 크기와 불상대좌 크기가 비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관룡사 약사전 석조불좌상의 경우 대좌 높이가 98.5cm로 용선대 석불좌상보다 높이가 37cm나 낮지만, 안상에 새겨진 글씨 크기는 가로 3cm, 세로 4cm로 용선대 명문에 비해 1.5배 이상 크고 깊이도 깊다. 용선대 석불좌상의 명문은 커다란 불상 대좌에 오래도록 남기기 위해 새겼다고 하기에는 글씨 크기가 작고 각의 깊이나 선이 너무 가늘다.

둘째, 4행의 경우 글자가 전혀 읽히지 않는다는 점이다(도2,3 참조).¹⁶⁾ 현재 안상의 크기로 짐작해 볼 때 명문이 완전했다면 명문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으로 한 줄이 더 새겨져 모두 네 줄이었어야 한다. 또 각각의 줄 아래로도 훨씬 더 많은 글자들이 새겨졌어야 한다. 만약 원래는 새겼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마모되었다고 하더라도 4행을 비롯하여 1~3행의 하단에도 새긴 흔적이 조금이라도 발견되어야

12) 이 글에서 사용하는 용어 '삼단팔각연화대좌'는 상,중,하 삼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상대와 하대는 연꽃으로 중대는 팔각인 형태를 말한다. 이 때 중대는 반드시 팔각이지만, 상대와 하대는 원형인 경우가 많다.

13) 최성은, 앞 글, pp. 235~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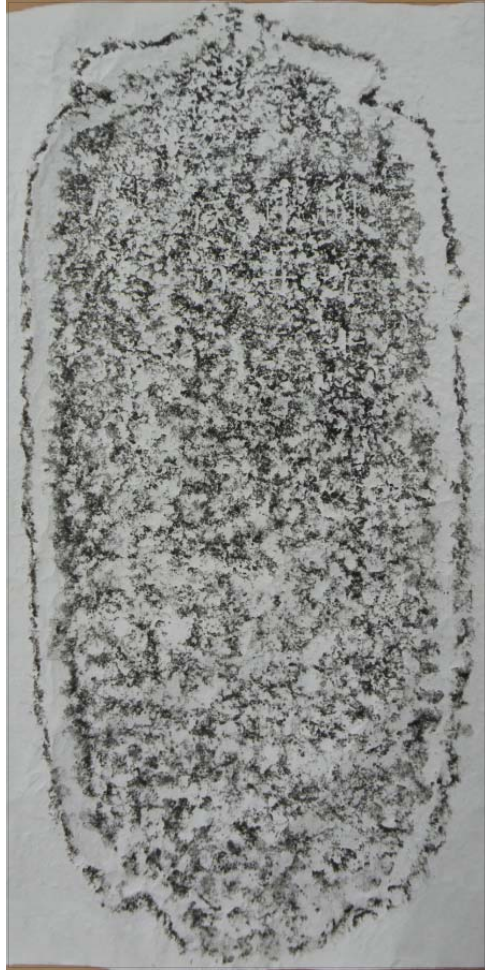
14) 최성은, 앞 글, p. 236.

15) 명문의 글씨체는 통일기 신라시대 폭넓게 사용되었던 구양순체로, 글씨 자체는 통일기 신라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었던 글자체라고 한다. 명문의 글씨체를 꼼꼼히 살펴 보아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이완우 교수께 감사드린다.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박사과정의 진복규 선생도 명문의 글씨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16) 이 용선대 석불좌상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295호로 지정되었다. 지정 당시 대좌의 명문이 없었거나, 만약 있었다면 미처 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도2. 용선대 석불좌상 중대 안상의 명문부분 ©임영애



도3. 도2의 탁본

한다. 그런데 2행의 卍 아래에 1cm 가량의 짧은 가로획을 제외하고는 새긴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¹⁷⁾ 이 짧은 가로획은 글자를 새기려다 만 것으로 보인다. 오랜 세월로 마모가 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새긴 흔적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刻手나 관련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¹⁸⁾ 불상과 대좌는 모두 완벽하게 조각했으면서 상대적으로 간단한 명문 새기는 일은 중간에 하다 말

17) 정현숙, 「창녕지역 신라금석문의 서풍」, 『서예학연구』 24, 2014, p. 39.

18) “필자가 실견한 결과 마모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刻字의 흔적이 없는 매끈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마모된 것이라면 같은 돌 위의 다른 글자들의 마모 정도가 비슷해야 하는데, 식별 가능한 글자는 한 획의 마모도 없이 선명했다. 마모되었다고 여기는 부분에도 한 획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정현숙, 앞 글, p. 39.

았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는 현재 2행의 첫 글자는 '月'이다. '開元十, 月卅, 이루다'의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개원십년 몇월 몇일"에서 '월'자를 첫 행의 아래에 쓰지 않고, 두 번째 행의 첫 글자로 둔 이유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첫 행의 아래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몇 월'이라고 쓰는 것이 보다 상식적으로 보인다.

또한 통상적으로 광배에 새기는 명문을 대좌 중대에 새기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잃어버려 광배가 없지만, 용선대 석불좌상 역시 원래 광배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용선대 석불좌상 대좌 상대의 넓이를 감안하면 광배가 놓일 자리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불상이 대좌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불상 뒷부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처음에는 불상이 보다 앞쪽에 놓여있었을 것이다. 통일기 신라 석불상의 경우 광배 뒷면의 넓은 공간에 명문을 새기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었다. 물론 남아있는 예가 드물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삼국시대 금동불상, 감산사 불상과 보살상도 광배에 명문을 새겨두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좌 중대에 명문을 새겼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실제로 한국의 불상 가운데 대좌에 명문을 새긴 경우는 이곳 관룡사 용선대와 약사전의 두 예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¹⁹⁾



도4. 1970~1972년 즈음의 용선대 석불좌상 ©강순형 제공



도5. 1972년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강순형 제공



도6. 1930년대 용선대 석불좌상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圖158

19) 물론 중국 불상은 대부분 대좌에 명문을 새긴다. 남북조시대에는 사각 대좌에, 당대에는 삼단팔각대좌의 중대에 주로 명문을 새긴다. 이는 중국불상은 광배 뒷면을 각종 부조조각으로 장식하기 때문에 광배에 명문을 새길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관룡사에서 500미터 떨어진 용선대 정상에 위치해 있는 석불좌상이 처음부터 이곳에 조성되어 있었을까? 용선대 석불좌상은 조성당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다. 1970~1972년 즈음의 사진에 의하면 하대 밑 바위의 모양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이다(도4,5). 당시의 사진으로 추정해 보면 지금의 자리보다 적어도 3m가량 뒤에 위치해 있었다. 도5는 대좌 아래 바위 상태가 보이지 않지만, 도4와 비교해 보면 석불좌상이 같은 자리에 놓였을 때의 사진이다. 그러나 그 자리 역시 그냥 보기에 불안정하여, 처음부터 그 장소에 그런 모양으로 조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²⁰⁾

이와 관련하여 창녕군청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6년 12월 용선대 불좌상 이전', 그리고 '1973년 11월~12월 해체보수'이다.²¹⁾ 위의 기록 가운데 '1966년 용선대 불좌상 이전'은 특별히 눈길을 끄는데, 애석하게도 단순히 이전이라고만 적고 있을 뿐 어디서 어디로 옮겨왔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²²⁾ 정확히 어디서 이전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창녕군청의 기록은 오사카 긴타로[藤島亥治郎]의 『朝鮮建築史論』에 실린 한 장의 사진에 의해 확인된다(도6).²³⁾ 1930년에 쓰인 이 책에는 당시 창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불상은 관룡사 앞 계천의 對岸에 있다고 전한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⁴⁾ 이로써 관룡사 석불좌상은 적어도 두 번은 옮겨졌음이 틀림없게 되었다. 즉 1930년 당시 관룡사 석불좌상은 관룡사 계곡 맞은 편 언덕 어딘가에 있었고, 이후 1966년 용선

20) 도5는 1972년 10월 영산초등학교의 수학여행 사진이다. "현재 석불상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여러 줄로 서서 사진을 찍을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 현재 위치는 불상 앞쪽이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 줄을 세겹 네겹 설 공간도, 더더구나 사진사가 설 자리가 없다."(강순형, 「강순형의 사찰문화재 답사 (91)관룡사 龍船臺 돌부처 얼굴」, 범보신문-2009.8.26.).

21) 창녕군청 대장의 기록에 관해 알려준 문화재연구소 강순형 소장과 창녕군청 유물관리 대장의 자료를 제공해 준 창녕군청의 조경화 학예사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2) 1966년이던 용선대 석불좌상이 이미 보물로 지정된 이후이다(1963년 1월 21일 보물 제 295호로 지정). 지정 이후 왜 옮겨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23)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1930(景仁文化社, 1982 再刊), p. 223.

24) 1980년 4월 29일에 작성된 문화재청의 문화재 카드에는 지정당시의 기록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본 석불은 준령현로에 위치하였으므로 일찍이 세상에 소개되지 못하다가 倭政(大正初)時 일인 藤島박사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개의 기회를 얻었다고 하나 幾個人에 불과하던 것을 단기 4288년(1955년) 12월 5일 문화재실태조사위원 박경원 선생이 현지를 답사하고 其 제작수법이 비범함을 절찬함과 동시 널리 소개하였으며, 조각의 묘와 佛面의 원만함이 국내에서도 굴지의 예술작품이라 한다." 용선대 석불좌상의 지정 당시 자료를 제공해준 문화재청의 이종숙 선생에게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로 옮겨졌으며, 다시 1973년 대좌를 수리하면서 용선대의 지금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다시 말해 용선대 석불좌상은 1930년대(도6)와 1970~72년(도4,5), 그리고 지금의 위치가 모두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남은 문제는 1930년에 '관룡사 앞 계천의 건너편 언덕'이 용선대 석불좌상의 원래 자리인지, 아니면 이조차 옮겨진 자리인지이다. 1930년대의 사진을 보면 상이 수평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어 이 역시 원래의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1966년의 창녕군청 기록이지만, 1970~72년 사진과 지금의 위치를 비교해 보아도 위치 이동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용선대 석불좌상은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자리를 옮긴 것이 된다.²⁵⁾ 불상의 높이만 188cm로 결코 쉽게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자주 불좌상을 옮겼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 번의 이전이 확인되며, 또 실제로 현재 용선대 석불좌상의 주변에는 광배편도 전혀 없고, 가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석불좌상을 처음부터 지금의 용선대에 조성했던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7. 용선대 석불좌상의 측면 ©임영애



도8. 삼릉계 석불좌상의 측면 ©임영애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현재 대좌 상대의 넓이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광배를 조성하였을 것은 틀림없다. 삼릉계 석불좌상의 옆모습과 비교해보면, 현재 불신 앞의 공간이 제법 넓다(도7,8). 처음에는 불신이 지금보다 앞쪽에 놓여 있었을 것이며, 불신을 앞으로 옮기면 뒤쪽으로 훨씬 넓은 공간이 확보된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조성당시 광배를 제작하지 않았을 리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광배가 함께 있었

25) 창녕군청의 기록과 문화재청 문화재카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30년 무렵 오사카 긴타로의 용선대 소개(도6), 1955년 박경원 문화재 실태조사(문화재청), 1957년 국보 지정(문화재청), 1966년 이건(창녕군청), 1973년 11월 해체 수리(창녕군청), 1980년 문화재 카드 작성(문화재청)이다. 이 기록에는 이 석불좌상이 1957년에 국보 지정되었다고 적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1963년에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7년 (혹은 1963년) 용선대 석불좌상을 국보로 지정한 이후 1966년에 왜 이건을 해야 했는지 알 수 없으며, 이건과 관련된 내용은 1980년 작성된 문화재 카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을 것이다. 짐작컨대 1966년 용선대로 옮기면서 광배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깨진 채로 원래 석불좌상이 있었다는 언덕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²⁶⁾

한편, 현재 용선대 석불좌상의 경우 불상과 대좌의 색이 달라 원래 제각이 맞는지 의심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 석질 및 지질 전문가인 강원대 이상헌교수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²⁷⁾ 즉 '좌상과 대좌의 색이 매우 다른데 그것은 풍화와 미생물의 서식 때문이다. 대좌의 암석은 심한 풍화에 의해 변색 되었고, 불상에는 많은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그러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암석은 불상과 대좌가 동일한 것으로 광물의 입자가 큰 조립질의 흑운모화강암으로 창녕 일대의 암석과 동일하다'는 것이다.²⁸⁾ 용선대 석불좌상은 불상과 대좌는 돌 색깔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비례로 보나, 양식으로 보나 처음부터 한 벌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불상과 대좌가 동일한 암석이지만, 미세한 성분의 차이, 풍화, 미생물의 서식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서로 다른 색을 띄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특징과 동일계열 불상

용선대 석불좌상은 상 높이가 188cm, 대좌높이가 136cm이다. '삼단팔각연화대좌'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광배는 없다. 이 불좌상은 두벌의 옷을 겹쳐 입는 소위 '이중착의' 형식으로 가사를 걸쳤다. 옷주름은 양각으로 돌출된 띠주름처럼 보이지만, 층단식의 주름이다. 이같은 '이중착의' 가사에 층단식 옷주름은 통일기 신라 하대에 특별히 유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⁹⁾

용선대 석불좌상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수인이다. 얼핏 향마촉지인처럼 보이지만 전형적인 향마촉지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전형적인 향마촉지인은 왼손바닥을 위로하여 배 앞에서 배와 평행으로 두고, 오른손은 오른 무릎 위에 얹어 손가락 끝으로 땅을 가리킨다. 반면, 용선대 석불좌상은 왼손의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손이 배 앞이 아닌 왼 무릎 위에 비스듬히 두고 있다. 오른손

26) 이 글의 도6(藤島亥治郎, 앞 책, 圖158)에 실린 사진의 장소를 찾아보려 하였으나, 낡은 흑백사진인데다가 배경이 너무 작아 원래의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27) 이 자리를 빌려 상세한 답변을 주신 이상헌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28) 혹은 현재 눈에 보이는 불상과 대좌의 색은 차이가 있지만, 원래 동일 암석이며, 간혹 상대, 중대, 하대를 연결하는 부위에 철심을 사용하면서 대좌의 색만이 변색되기도 한다는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 석조문화재보존 전문가인 경주대 문화재보존학과 도진영 교수 역시 불상과 대좌 암석의 색 차이에 관해 친절히 답변해 주었다.

29) 주진령, 「통일신라 하대 불상의 二重着衣法 연구」, 『미술사학연구』 233-234, 2002, pp. 5~36.



도9. 순금제 아미타불입상 얼굴 ©문화재청 『국보』 268



도10. 감산사 아미타불입상 얼굴 ©임영애

역시 오른 무릎 위에 살짝 올려두고 있을 뿐 손가락이 땅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동일한 형식의 수인은 7세기 후반 군위삼존불에서 처음 보이지만, 대부분의 예들은 8세기말~9세기로 편년되는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삼릉계 석불좌상(도16,17), 분황사 우물 출토 불좌상 등 통일기 신라 후기의 양식

적 특징을 지닌 불상 가운데 제법 많은 예가 남겨져 있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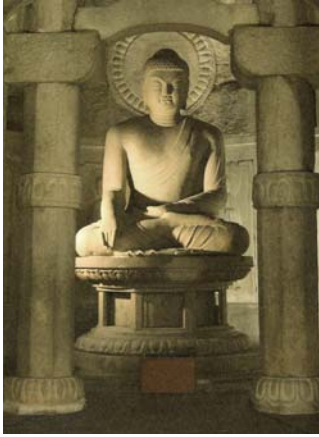


도11. 순금제 아미타불좌상의 측면 ©문화재청 『국보』 276

육계의 표현도 주목할 만하다. 용선대 석불좌상의 육계는 크고 평퍼짐하다. 8세기 전반 불상의 육계와 비교해 보면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즉 706년경 구황동삼층석탑 출토 순금아미타불좌상(도9)이나 720년 감산사 아미타불입상(도10)의 경우 육계가 붕긋하게 솟아있다. 이처럼 수직에 가깝게 솟아있던 육계는 751~771년의 석굴암 본존상이나 766년 석남 암사 비로자나불좌상을 기점으로 높이가 낮아지고 이후 옆으로 퍼지는 경향을 보인다(도12,13). 통상 9세기로 넘어가면 육계가 더욱 평퍼짐해지면서 구분이 불분명해진다. 삼릉계 석불좌상, 분황사 우물 출토 불좌상, 863년경 동화사 비로자나불좌상, 865년 도피안사 칠조비로자나불좌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도14).

다음은 용선대 석불좌상의 팔각연화대좌에 주목하려 한다. 용선대 석불좌상의 대좌높이는 지대석을 포함하여 136cm이다. 지대석을 뺀 대좌의 높이는 117cm인데, 상대양련석의 두께가 36.5cm이어서 전체 높이의 1/3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다. 중대의 높이는 60cm로 전체 높이의 1/2에 달한다. 현재 남겨진 통일기 신라 조각 가운데

30) 군위 삼존불에 관해서는 黃壽永, 「石窟庵本尊 名號考」,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21집, 2000.8, pp. 281~ 308 ; 大西修也, 「軍威石窟三尊佛考」, 『佛教藝術』 129, 1973, pp. 37~54 ; 군위삼존석굴의 독특한 수인에 관해서는 배진달, 「군위삼존석굴-촉지인 불좌상의 성격을 중심으로」(『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제2권, 향산 안휘준교수 퇴임기념 논총, 사회평론, 2006, pp. 34~51)의 글이 있다.



도12. 석굴암 본존상
©박진호



도13.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좌상 ©오세윤



도14. 도피안사
비로자나불좌상 ©임영애

데 상중하단으로 구성된 삼단팔각연화대좌를 갖춘 가장 이른 예는 석굴암 본존상이다. 물론 그보다 앞서 상중하 삼단으로 구성된 대좌가 등장하기는 한다. 바로 706년경 황복사삼층석탑 출토 순금아미타불좌상이다(도11). 그러나 이 아미타불좌상은 삼단의 구성을 갖추고는 있지만, 중대가 팔각이 아닌 원형이다. 그리고 여전히 상현좌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삼단팔각연화대좌는 석굴암 본존상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통일기 신라의 불좌상에 거의 예외 없이 사용된다.

삼단팔각연화대좌는 8세기 중엽 무렵 석굴암 본존상에서 시도되었다(도12). 그런데 최초기의 삼단팔각연화대좌는 중대의 높이가 높지 않다. 석굴암 본존상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758년 무렵의 김천 갈항사지 석불좌상³¹⁾, 766년 석남 암사 비로자나석불좌상의 대좌 역시 중대의 높이가 높지 않다(도13).³²⁾ 하지만 이후 대좌의 중대 높이는 점차 높아진다.

국립중앙박물관 의 삼릉계 석불좌상(도18)을 비롯하여 863년 동화사 비로자나불, 865년 도피안사 비로자나불(도14) 등 9세기가 되면 석굴암 본존상 대좌 중대의 높이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대좌 중대의 높이가 불상 조성시기의 절대기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불상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해 보면 점차 중대 높이가 높아지는 큰 흐름의 변화가 분명히 드러난다(도15).³³⁾ 상대양력석의 높이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언급한 8세기 중엽의 갈항사지 석불

31) 문명대, 「김천갈항사석불좌상의 고찰」, 『동국사학』 15-16, 1981, pp. 53~62.

32) 8세기 팔각연화대좌에 관해서는 임영애,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수용과 전개」, 『신라문화』 38, 2011, pp. 279~306을 참조하기 바란다.

33) 임영애, 앞 글, pp. 288~292.



도.15 8~9세기 불좌상 삽도(*하대 하단 기준. 문명대, 『한국조각사』, 1980, 그림61,95을 재구성)

좌상이나 석남 암사 비로자나불좌상, 석굴암 본존 등의 상대 양련석은 모두 높이가 낮다. 이에 반해 9세기대 불좌상의 상대 양련석은 대체로 높이가 높아 용선대 석불좌상의 상대 높이와 비슷하다. 팔각 중대에 새겨진 안상도 마찬가지이다. 석굴암 본존의 대좌도, 766년 석남 암사 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에도 안상은 없다. 통상적으로 안상은 8세기 후반 이후의 불좌상의 대좌 중대에 주로 새겨진다. 용선대 석불좌상과 같은 양식을 지닌 국립중앙박물관의 삼릉계 석불좌상(도18)에도 안상이 새겨져 있다.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과 동일한 양식을 지닌 불상들이 적지 않다. 용선대 석불좌상과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보이는 예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삼릉계 석불좌상(도18), 같은 삼릉계의 불좌상 두 구(도16,17), 용장계의 불좌상, 팔공산 관봉의 불좌상 등이 있다. 얼굴모습 뿐만 아니라 짧은 목, 각진 어깨에 마치 들덩어리를 쌓아올린 듯한 신체표현은 균위삼존불, 용선대 석불좌상과 마찬가지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삼릉계 석조약사불좌상은 용선대 석불좌상과 특히 유사점이 두드러지는데, 옆으로 퍼진 육계와 두툼한 눈, 짧은 목, 둥근 신체표현 뿐만 아니라 통견의 이중착의형식 역시 유사하다. 삼단팔각의 연화대좌도 마찬가지인데, 높은 중대에 안상이 있다. 팔공산 관봉 불좌상 역시 평퍼짐한 육계, 짧은 목, 두툼한 어깨와 무릎의 표현이 용선대 석불좌상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삼릉계 석불좌상과 같은 계열의 상으로 볼 수 있다.³⁴⁾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새로 발견된 명문이 조성당시의 것이 확실하다면 지

34) 팔공산 관봉 석불좌상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김춘실,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의 양식 특징과 조성 배경 : 통일신라기 五岳信仰과 관련하여」, 『불교미술사학』 15, 2013, pp. 39~69.



도16. 삼릉계 석불좌상(1)
©임영애



도17. 삼릉계 석불좌상(2)
©임영애



도18. 삼릉계
석불좌상 ©임영애

금까지 통일기 신라 불상의 양식에 관한 통념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이 석굴암보다 앞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목이 짧고 어깨와 무릎이 각진 모습이 균위삼존불과 같은 계열이기는 하지만, 평퍼짐한 육계, 두툼한 손, 두툼한 무릎, 높은 상대와 중대 등의 표현은 석굴암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롭게 밝혀진 명문대로라면 용선대 석불좌상은 석굴암보다 앞서 만들어진 것이 된다.

이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용선대 석불좌상이 창녕에 있다는 점이다. 경주가 아닌 창녕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용선대 석불좌상이 8세기 전반 불상으로 비정되려면, 적어도 7세기 후반 혹은 8세기 초에 유사한 양식의 불상이 왕경에 존재해야 한다. 물론 왕경의 불상이 지방에 비해 반드시 앞선 양식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물론 없다. 그러나 통상 왕경 혹은 왕경 주변 지역의 불상이 선진 양식을 띤 예가 많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곳 창녕에서 가장 이른 '삼단팔각연화대좌'가 석굴암 본존상 보다 30여년 앞서 등장한다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³⁵⁾

35) 경남 산청의 766년 석남 암사 비로자나불도 한국의 가장 이른 비로자나불상이라는 점에서 지방에 중앙보다 앞선 예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766년보다 앞서, 혹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왕경에서 이미 비로자나불상이 조성되었지만 남아있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成覿(1439~1504)의 시 가운데 '(영묘사) 옛 사찰의 거칠고 푸르름이여 몇 차례의 봄을 보았는가, 당시의 유적은 이미 티끌이 되었건만 황금의 큰 불상은 비로불이요 …'(『虛白堂集』 卷5 男世昌編集, 詩, 靈妙寺)라고 적은 구절이 있다. 영묘사의 이 비로불과 경덕왕 23년, 764년에 개금하였다는 영묘사의 장육존상이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의 글에서 다룰 예정이다.

Ⅲ. 통일기 신라 '촉지인계열' 수인의 양상과 의미

용선대 석불좌상의 수인은 독특하다. 항마촉지인과 유사하긴 하지만, 전형적인 항마촉지인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형적인 항마촉지인은 오른 무릎 위에 엮은 오른손이 깊이 내려오지만, 용선대 석불좌상은 무릎 위에 살짝 올려두었다. 왼손 역시 배와 수평으로 배 앞에 가로 놓지 않고 45도 각도 비스듬히 돌려 두었다. 이처럼 변형된 항마촉지인의 손 모양을 이 글에서는 통칭 '촉지인 계열'이라 부른다. 이러한 손 모양을 두고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첫째, 항마촉지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수인으로 '초기 형태의 항마촉지인'으로 본다.³⁶⁾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그 의미는 통상적인 항마촉지인과 같다고 여긴다. 항마촉지인은 석가모니불의 별인이지만 "촉지인좌상은 석가불은 물론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미타불 또는 약사불로서도 표현된 예들이 발견되는 것은 당시의 지역적인 특수한 신앙적 요구나 유행경향을 따라 불상의 존명도 다르게 불리어지고 있었으며, 이 촉지인상은 하나의 보편적인 불좌상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라고 파악하기도 한다.³⁷⁾ 둘째는 항마촉지인과 유사한 모양이기는 하지만 항마촉지인은 아니라고 보는 경우이다.³⁸⁾ 셋째는 항마촉지인과 여원인이 결합된 손 모양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항마촉지인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마촉지인의 오른손과 여원인의 왼손을 몸에 붙인 형태로 조합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³⁹⁾ 이는 항마촉지인이라는 새로운 도상이 전래되면서 기존의 도상과 혼합되어 나타난 양상으로 이해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유사한 손 모양은 용선대 석불좌상과 동일한 양식을 지닌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의 삼릉계 석불좌상(1)(도16), 삼릉계 석불좌상(2)(도17), 분황사 우물 출토 석불좌상 등에서 확인된다. 이들 '촉지인 계열'을 한 불상의 존명은 무엇인가? 같은 '촉지인 계열'의 군위삼존석불은 아미타불이다. 그렇다면 같은 수인의 8세기 후반~9세기 불좌상들도 모두 아미타불로 보아도 좋은가?

한편, 중국 당대 가장 유행했던 불상은 잘 알려진 대로 아미타불상이다. 당시 보편적으로 쓰인 아미타불상의 수인은 오른손으로 시무외인을 짓고, 왼손은 마치

36) 김리나, 앞 글, pp. 334, 342 ; 배진달, 앞 글, p. 41.

37) 김리나, 앞 글, p. 381.

38) 강우방,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대원사, 1995, p. 243.

39) 최성은, 앞 글, p. 243 ; 혹은 항마촉지인의 변형이라기보다는 시무외·여원인의 통인의 변형이라고 보기도 한다. 즉 왼손은 여원인이며 오른손은 본래 시무외인으로 올렸던 손을 무릎에 내려놓은 통인의 변형이라고 본 것이다(강우방, 「통일신라시대 불교조각론」, 『한국미술사의 현황』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1992, p. 153).



도19. 아미타삼존불좌상,
705년, 낙양박물관
©『唐の女帝
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圖14



도20. 삼존불, 716년,
프리어미술관 ©松原三郎,
『中國佛教彫刻史論 四』,
p.673a

촉지인처럼 왼 무릎위에 둔 손모양이다.⁴⁰⁾ 통일기 신라의 불상 가운데는 706년경의 황복사 순금아미타불좌상이 있다. 당대 불상 가운데는 이보다 수량은 적지만 용선대 석불좌상과 같은 '촉지인 계열'의 상도 있다. 흥미롭게도 8~9세기 당대 불상 가운데는 이러한 수인의 불상에 아미타불상의 명문이 있다.⁴¹⁾ 낙양박물관의 705년 神龍元年銘 아미타삼존불좌상이 있

고(도19), 프리어미술관의 716년 開元4年銘 삼존불(도20)처럼 '촉지인 계열'의 수인 이면서 아미타불의 명문을 지녔다.⁴²⁾

심지어 왼손에 보주를 들었는데도 아미타불이라고 적고 있는 예가 있다. 병령사 석굴 제54감 아미타삼존불상이 대표적인 예인데 촉지인의 수인에 왼손에 보주가 올려져 있다(도21). 감 아래쪽에 "大唐永隆二年閏七月八日 隴右道巡察使 行殿中侍 御使王玄△ 敬造阿彌陀佛一軀并二菩薩"이라고 적힌 명문이 있어 681년에 제작된 아미타불상임을 알 수 있다. 왼손 위에 올려진 보주를 후대에 보수된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⁴³⁾ 병령사 석굴에만 동일한 수인이 한 두예가 아니어서 모두 다 보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서안 비림박물관의 삼존감의 불좌상 역시 좌우협시가 정병을 쥐고 있는 아미타불좌상인데 바로 촉지인이면서

40) 김선경, 「당대 아미타삼존상의 도상과 長安 光宅寺 七寶臺 阿彌陀三尊像」,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5, pp. 50~51.

41) 문명대, 「통일신라 불상 조각과 당 불상 조각과의 관계」, 『통일신라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1, p. 79(『원음과 고전미』, 도서출판 예경, 2003, pp. 46~47).

42) 낙양박물관의 705년 神龍元年銘 아미타삼존불좌상은 명문에도 아미타불상이라고 적고 있지만, 좌우협시도 정병을 든 관세음보살과 보주를 든 대세지보살로 구성되어 있다. ; 용문석굴에도 '촉지인 계열'의 아미타불이 많은 수량 조성되어 있어 단순한 착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용문석굴의 촉지인 아미타불상에 관해서는 久野美樹(『唐代龍門石窟의觸地印阿彌陀像研究』, 『鹿島美術研究』 20, 2003, pp. 430~439)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43) 최성은, 앞 글, 각주 30.

보주를 들었다. 물론 보주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의 위광을 집약한 것으로 모든 불상이나 보살이 지닐 수 있다.⁴⁴⁾ 하지만 보주를 든 불상을 명실 공히 약사불로 볼 수 있으려면 8세기 중엽에 번역된 『藥師如來念誦儀軌』의 언급대로 오른손은 三界印, 왼손은 약기(혹은 보주)를 들어야 한다.⁴⁵⁾ 가장 이른 예로 굴불사지의 약사불, 칠불암 약사불을 들 수 있다.⁴⁶⁾ 통일기 신라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의 오른손 축지인에 왼손에 작은 보주를 든 삼릉계 석불좌상의 경우도 중국의 예와 같은 맥락으로 아미타불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약사불로

보아야 할지는 판단을 유보한다.⁴⁷⁾



도.21 병령사 석굴 제54감 아미타삼존
©임영애

한편 용문석굴 惠簡洞(673년)의 좌상 가운데에도 동일한 수인을 한 예가 있다. 미륵불인 불의좌상이 역시 '축지인 계열'의 수인을 하고 있어 적어도 중국 당대에 이 '축지인 계열'의 불상은 석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 외에도 약사불, 혹은 미륵불로도 조성되고 있어 불상의 일반적인 수인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 44) 7세기말~8세기초의 범룡사금당 약사불좌상, 8세기 전반 약사사의 금당 약사삼존상 중 본존은 지물없이 통인을 한 약사불이다.
- 45) T0924A 『藥師如來念誦儀軌』 一卷 '安中心一藥師如來像如來左手令執藥器 亦名無價珠右手令作結三界印'.
- 46) 『藥師如來念誦儀軌』가 8세기 중엽에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성된 예들, 예컨대 8세기 전반의 칠불암 사방불의 경우 약사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기도 한다(이숙희, 「통일신라 오방불의 도상 연구」, 『미술사연구』 16, 2002, p. 27.
- 47) 이 약사불좌상은 오른손은 축지인을 하고, 왼손바닥에 보주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약사불의 손모양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8세기 중엽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약사불은 대부분 오른손을 들어 三界印을 결하고, 왼손에 藥鉢을 올려두고 있다. 반면 이 약사불좌상은 오른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무릎 위에 올려둔 소위 '축지인'을 짓고 있다. 고대 한국의 약사신앙과 藥器에 관해서는 임남수, 「고대한국 약사신앙의 전개양상과 조상」(『사림』 제24호, pp. 73~99)을 참조하기 바란다. ; 약기의 형태도 시대마다 다른데, 삼릉계의 약사불좌상은 통상적인 약함이 아니라 동그란 원형의 보주를 손바닥 위에 두고 있으며, 보주의 크기가 작게 표현되어 있다. 8세기 후반에 약사불의 도상이 확립되면서 약기의 표현도 보주형과 함께 구체적인 약기 표현으로 진행된다(유근자, 「통일신라 약사불상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03호, 1994, p. 83) ; 김혜완, 「신라의 약사신앙-약사여래 조상을 중심으로-」, 『천관우선생활력기념한국사학논총』 정음문화사, 1985, pp. 311~343.

크다. 용선대 석불좌상의 경우, 언제부터 이곳을 '용선대'라고 불렀는지 분명하지 않고, 앞서 이야기한대로 이 불좌상을 처음부터 관룡산 정상에 봉안했던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선학이 지적한대로 아미타불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⁴⁸⁾ 이처럼 이 '촉지인 계열'이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불, 미륵불의 수인으로 사용된 것을 보면, 어쩌면 촉지인 수인이 대승불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모든 부처가 석가모니불과 같은 깨달음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대승불교 사상에 입각해서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V. 맺음말 - '명문'과 '양식'의 불일치 문제-

관룡사 용선대의 석불좌상은 최근 중대 안상 안에서 '開元十'의 명문이 발견되면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용선대 석불좌상의 명문을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명문 그 자체도 의심스럽지만 양식적으로도 용선대 석불좌상을 8세기 전반의 불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평퍼짐한 육계와 두터운 상대 양련석,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 등은 9세기 불상에서 주로 보이는 특징이다. 또 '촉지인 계열' 수인 역시 처음 군위 삼존석불에서 시작되었지만,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불좌상에서 주로 애용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창녕에는 불교유물이 적지 않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8세기 중엽이전으로 올라가는 예가 없다는 점도 8세기 전반에 용선대 석불좌상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희박하게 한다.⁴⁹⁾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관룡사 약사전의 석불좌상에 새겨진 명문도 불상과 동일 시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1996년 약사전의 석불좌상 대좌 중대에서도 '大曆七年任子', 즉 772년에 제작된 미륵불이라는 명문이 있음이 밝혀졌다.⁵⁰⁾ 이 불

48) '용선대 불상의 수인의 표현은 당시 중국에서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던 향마촉지인과 기존의 通印이 부분적으로 결합된 변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군위석굴 본존상의 수인과 동일한 점에서 그 존명이 아미타불일 개연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관룡산 정상에 봉안되어 있는 용선대 석불좌상을 성덕왕때 실시되었던 전국의 산천제사 정비와 관련 짓기도 한다(최성은, 앞 글, pp. 251~254) ; 신라 하대가 되면서 풍수설에 의한 산천비보의 사상에 의한 특수예로 보기도 한다(진홍섭, 앞 책, p. 250).

49) 창녕의 불교미술 가운데 술정리동삼층석탑이 8세기 유물에 해당하는데, 대략 8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박경식, 「신라 전형기 석탑에 대한 소고」, 『문화사학』 21, 2004, pp. 467~468) ; 이 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주경미,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고찰」(『미술자료』 77, 2008, pp. 77~91)을 참조하기 바란다.

50) 하일식, 「창녕 관룡사의 石佛臺座銘과 <觀龍寺寺蹟記>」, 『한국고대사연구』 12, 1997.10.

상 역시 명문의 연대와 불상의 양식이 서로 맞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藤島亥治郎의 『朝鮮建築史論』의 내용이다. 이 책에는 바로 관룡사 약사전의 석불좌상의 실측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실측도는 1929년 1월 藤島亥治郎 본인이 직접 그린 것이다.⁵¹⁾ 실측도와 함께 불상에 대한 반쪽 분량의 서술이 있는데, 어디에도 명문에 관한 언급은 없다. 물론 실측하면서 대좌 중대의 명문을 놓쳤을 수도 있지만, 불상의 양식과 명문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관룡사 약사전 대들보에 적혔었다는 東晉 永和5年, 즉 349년명의 묵서도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⁵²⁾

창녕에 적지 않은 불교미술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곳은 경주 이외의 지역 가운데 특별히 불교가 융성했던 곳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대로 남겨진 유물 대부분이 8세기 후반~9세기 전반 무렵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전으로 올라가는 예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술정리동삼층석탑이 가장 이른 예이다. 이 탑은 전형적인 신라석탑이 경주 이외의 지역에 건립된 대표 예이며, 대략 8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그리고 보면 창녕은 전략요충지로서 꾸준히 왕경과의 긴밀도를 유지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녕이라는 지역에 경주 석굴암 본존 보다 앞서 '삼단팔각' 연화대좌가 최초로 조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경주지역에는 석굴암 본존 이전으로 올라가는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8세기 전반에는 중국 당대 조각에서조차 '삼단팔각' 연화대좌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⁵³⁾ 왕실과 관련 있는 706년 구황동 삼층석탑출토 금동아미타불좌상에서조차 여전히 상현좌의 불좌상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창녕이라는 지역에서 720년경 신라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이른 '삼단팔각' 연화대좌가, 그것도 대좌 중대의 높이가 특별히 높은 대좌가 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이 8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명문이 새롭게 알려지기는 했지만, 신라 조각사의 흐름으로 볼 때 8세기 전반으로 올려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명문이 알려지기 전, 양식 특징만으로 판단했던 8세기 말~9세기 전반 무렵의 제작 시기가 보다 타당하다.⁵⁴⁾ 특히 이 시기는 창녕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유력자가 자신의 재력과 위상을 보여주며 왕경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pp. 475~478 ; 『문자로 본 신라』, 국립경주박물관, 2002, p. 200, 圖391 참조.

51) 藤島亥治郎, 앞 책, p. 223.

52) 이 글의 각주 9 참조.

53) 임영애, 「근륜산, 수미산 그리고 삼단팔각 연화대좌 -삼단팔각 연화대좌에 담긴 상징」, 『강좌미술사』 34, 2010, pp. 20~21.

54) 진홍섭, 앞 글, pp. 249~250 ; 김리나, 앞 글, p. 372.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새로 발견된 '명문'과 '양식' 문제

하던 때이기도 해서 용선대 석불좌상과 같은 우수한 작품의 탄생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⁵⁵⁾

[논문투고일 : 2월 2일, 논문심사완료일 : 2월 12일, 논문게재확정일 : 2월 15일]

55) 810년 인양사금당치성비에 적힌 “802년에 왕경의 4개 사찰, 즉 봉덕사, 영흥사, 천업사, 보장사에 곡식 2713석을 주었다”는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준다(하일식, 「昌寧 仁陽寺碑文의 研究 - 8세기 말~9세기 초 신라 지방사회의 단면」, 『한국사연구』 95, 1996, pp. 23-58) ; 윤선대,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敎信仰結社」, 『신라 문화』 26, 2005, pp. 113~135 ; 박홍국, 「昌寧 仁陽寺碑文의 塔 關聯記事에 대한 검토」, 『신라문화』 32, 2008, pp. 225~247 ; 문명대, 「인양사금당치성비문의 한 고찰」, 『신라 가야문화』 11, 1980, pp. 49~58.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

- 성현, 『虛白堂集』 卷5 男世昌編集, 詩, 靈妙寺.
- 이종휘, 『修身集』, 1799년.
- 조극섭, 『巖棲集』, 연대미상.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7권 경상도 昌寧縣
- T0924A 『藥師如來念誦儀軌』 一卷.

2. 단행본 및 저서

- 『문자로 본 신라』, 국립경주박물관, 2002, p. 200, 도391.
- 강우방,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대원사, 1995, p. 243.
- 진홍섭, 『한국의 불상』, 일지사, 2009, pp. 249~25.
-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1930(景仁文化社, 1982), p. 223.

3. 논문류

- 강순형, 「강순형의 사찰문화재 답사 (91)관룡사¹⁸-龍船臺 돌부처 얼굴」, 범보신문, 2009. 8. 26.
- 강우방, 「통일신라시대 불교조각론」, 『한국미술사의 현황』 한림대학교 한림과 학원, 1992, p. 153.
- 고고미술뉴스, 「창녕관룡사약사전상량문발견」, 『고고미술』 10, pp. 22~23.
- 김리나, 「통일신라시대의 향마촉지인불좌상」,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일조각, 1991, p. 372.
- 김선경, 「당대 아미타삼존상의 도상과 長安 光宅寺 七寶臺 阿彌陀三尊像」,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5, pp. 50~51.
- 김주태, 「관룡사대웅진상량문」, 『고고미술』 6-10,11, 1965, p. 141.

- 김춘실,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의 양식 특징과 조성 배경 : 통일신라기 五岳信仰과 관련하여」, 『불교미술사학』 15, 2013, pp. 39~69.
- 김혜완, 「신라의 약사신앙-약사여래 조상을 중심으로-」, 『천관우선생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정음문화사, 1985, pp. 311~343.
- 문명대, 「김천갈항사석불좌상의 고찰」, 『동국사학』 15-16, 1981, pp. 53~62.
- 문명대, 「인양사금당치성비문의 한 고찰」, 『신라가야문화』 11, 1980, pp. 49~58.
- 문명대, 「통일신라 불상 조각과 당 불상 조각과의 관계」, 『통일신라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1, p. 79(『원음과 고전미』, 도서출판 예경, 2003, pp. 46~47).
- 박경식, 「신라 전형기 석탑에 대한 소고」, 『문화사학』 21, 2004, pp. 467~468.
- 박홍국, 「昌寧 仁陽寺碑文의 塔 關聯記事에 대한 검토」, 『신라문화』 32, 2008, pp. 225~247.
- 배진달, 「군위삼존석굴-축지인 불좌상의 성격을 중심으로」,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제2권, 향산 안희준교수 퇴임기념논총, 사회평론, 2006, pp. 34~51.
- 유근자, 「통일신라 약사불상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03호, 1994, p. 83.
- 윤선대,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教信仰結社」, 『신라문화』 26, 2005, pp. 113~135.
- 이숙희, 「통일신라 오방불의 도상 연구」, 『미술사연구』 16, 2002, p. 27.
- 임남수, 「고대한국 약사신앙의 전개양상과 조상」, 『사림』 제24호, pp. 73~99.
- 임영애, 「곤륜산, 수미산 그리고 삼단팔각 연화대좌 -삼단팔각 연화대좌에 담긴 상징」, 『강좌미술사』 34, 2010, pp. 20~21.
- 임영애,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수용과 전개」, 『신라문화』 38, 2011, pp. 279~306.
- 장일규, 「창녕 관룡사의 신라 불교사적 위상」, 『新羅史學報』 26, 2012, pp. 51~77.
- 정현숙, 「창녕지역 신라금석문의 서풍」, 『서예학연구』 24, 2014, p. 39.
- 주경미,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고찰」, 『미술자료』 77, 2008, pp. 77~91.
- 후보돈, 김용성, 이한상, 조효식, 『한국 고대사 속의 창녕』, 창녕군 경북대 영남 문화연구원, 2009, pp. 74~81.
- 주진령, 「통일신라 하대 불상의 二重着衣法 연구」, 『미술사학연구』 233-234, 2002, pp. 5~36.
- 진홍섭, 『한국의 불상』, 일지사, 2009, pp. 249~25.

- 최성은,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소고-조상명문과 중대신라 불교조각」, 『신라사학보』 16, 2009, pp. 225~226.
- 하일식, 「창녕 관룡사의 石佛臺座銘과 <觀龍寺寺蹟記>」, 『한국고대사연구』 12, 1997, pp. 475~478, 485~488.
- 하일식, 「昌寧 仁陽寺碑文의 研究 - 8세기 말~9세기 초 신라 지방사회의 단면」, 『한국사연구』 95, 1996, p. 32.
- 黃壽永, 「石窟庵本尊 名號考」,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21집, 2000.8, pp. 281~ 308.
- 久野美樹, 「唐代龍門石窟的觸地印阿彌陀像研究」, 『鹿島美術研究』 20, 2003, pp. 430~439.
- 大西修也, 「軍威石窟三尊佛考」, 『佛教藝術』 129, 1973, pp. 37~54.